

활기 찾아가는 푸드마켓

기부물품이 넉넉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11월에도 '기부천사'들이 사랑을 채워주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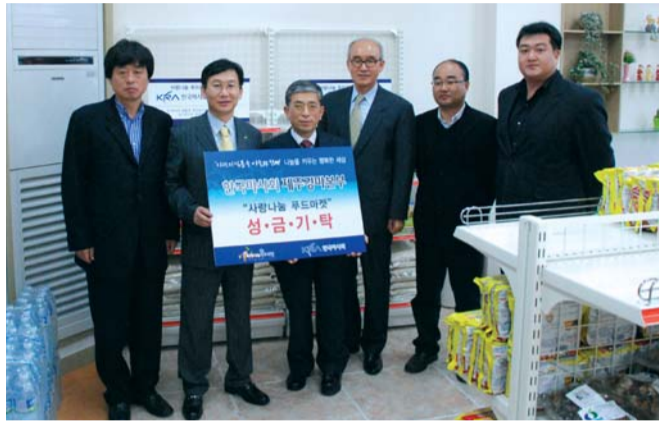
제주지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주마쌈(회장 한상용)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업체로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회원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생산 물품을 푸드마켓에 기탁했다.

한상용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마켓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회장 이정선)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전국보육인대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1200kg을 선뜻 내왔다.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동아리 '한꿈레오'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 원을 보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20만 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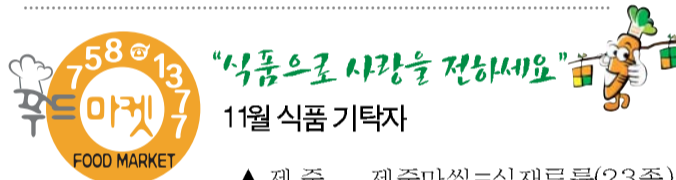
제주시지역 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시민과 함께 하는 2009 사회복지 열린마당'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본부장 남병곤)는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푸드마켓에 기탁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 별도로 설치한 '경마본부' 부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담근 김치 216kg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생필품류 474개와 쌀 174kg을 기탁했다.

이 외에도 많은 소액 기부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수(1.5l) 2000개, 감귤주스(150ml) 2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8kg ▲명도안관광휴양목장=유기농채소류 3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코사마트=사과 10상자 ▲제주이어도자활센터=단감 3상자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김치 216kg ▲김치원=김치 62kg ▲제주시청=생필품류 474개, 쌀 174kg ▲제주마쌈=식재료류(23종) 1136개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쌀 1200kg ▲푸른제주농조합법인=감자 50상자 ▲산방미곡=쌀 60kg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빵 3상자 ▲고용법=김 2상자 ▲간수남=쌀 300kg ▲현민절=신라면 8상자, 초코파이 7상자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동아리 한꿈레오=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20십만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운영시 법률·세무·계약·일반행정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일부터 '사회복지행정 e 상담실' 홈페이지(ewelfare.jejubokji.net)를 본격 운영한다.

'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에 접속한 뒤 오른쪽에 위치한 배너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상담분야를 선택, 내용을 의뢰하면

분야별 상담위원들이 일대일로 답변한다. 이용자가 비공개를 원할 경우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연봉 변호사(법률), 김희정 공인회계사(세무), 박일홍 제주도 계약심사담당(계약), 고경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일반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e 상담실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단체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아카데미 12월 교육 안내

- 사회복지계약실무교육**
일시 : 12월 8일 15:00~17:00
내용 : 사회복지계약업무 매뉴얼 해설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화관 삼다수홀
※ 교육참가자에 한해 '사회복지계약 업무 매뉴얼' 배부
- 비영리법인 세무교육**
일시 : 12월 18일 15:00~17:00
내용 : 비영리법인과 세금 등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화관 삼다수홀

지면소개

- 종합 2·3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시설 탐방-남제주요양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여성장애인 작품 전시회·소식마당
제주속담사전 전자도서 발간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토론회

"월드디자인" 이 만들면 작은 책 하나도 특별해집니다

창조적디자인을하는공간

WORLD CREATIVE·THINKING DESIGN

기대이상의 만족

064+755+4580

팸플렛|브로슈어|카달로그|출판|포스터|패키지|신문잡지광고

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직장·지역가입자 월 평균 3539원·3165원 올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월 평균 1349원 증가

내년 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4.9%는 2007년과 2008년의 6%대 인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에는 경제 위기를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5.33%로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 2234원에서 7만 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되며, 지역가입

자의 평균보험료는 6만 4610원에서 6만 7775원으로 3165원이 오른다.

복지부는 또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5%로 낮아진다.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를 보험급여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수급자가 올해 10월 현재 28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3090원에서 1349원 오른 4439원이다.

한편 내년에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를 확대하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가 인상됐다.



2009 전국보육인대회 '성황' 11월 18일 서귀포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년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이정선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보육인대회에서는 보육 유공자와 보육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이 이뤄져 훈·포장을 포함해 총 28개 정부포상(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20, 국무총리표창 25, 장관표창 234)이 있었다.

제주시김지애씨, 의료관리사레 전국 최우수

제주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4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복지과 김지애씨(사진)가 제출한 '지속적인 신뢰형성을 통한 장기입원관리 성공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뇌병변 1급과 당뇨·노병·고혈압·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투병하는 부부의 건강관리를 꾸준한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맞춤형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과다한 병·의원 방문을 방지해 주기적인 운동 등을 통한 정서적인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과 의료비 재정부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텔레케어사업은 병원입상 경력이 다양한 간호사 출신 7명이 맡고 있다.

26개 읍·면·동 권역별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전담해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 약물오·남용 예방상담 등을 하고 있다.

11월 현재 제주시 의료급여수급자는 8732가구 1만 7683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1인이 1247가구 2526명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제주시, 소득하위 60%서 70%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기준이 종전 소득하위 6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된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소득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됐다.

소득하위 50%의 만 0~4세아, 소득하위 70%의 만 5세아, 장애아동 등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만 0~1세아에 대해선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 제주시 보육료 예산은 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440억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건강검진비 20% 할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 건강정보 제공과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원, 건강강좌 개설 등의 건강관련 활동 협력 체계를 상호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등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채용신체검사시 20%를 할인받는다.

문의=747-7531~2.



취약계층 영·유아 감각놀이 프로그램 '호응'

제주시가 용담1·2동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감각놀이 프로그램(사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사정으로 적절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의 감각발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18명을 연령별로 3개반으로 나눠 지난 8월부터 주 1회 해비라기아동발달교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초점은 '오감

만족'에 맞춰져 있다.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곡식, 신문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 연령에 맞게 감각기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후에는 간식이 제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오감각 기능이 공평한 출발선에 놓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 2009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660,000	66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410,000	410,000
복지사업후원	1,550,000	374,180
푸드마켓후원	4,870,000	2,00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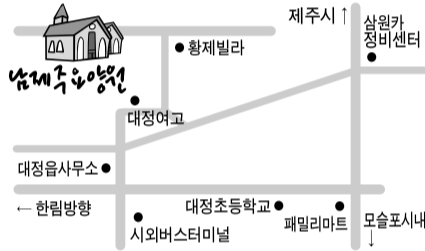
시설탐방

(25) 남제주요양원



가족같은 돌봄, 내 집같은 편안함

1988년 5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잡은 남제주요양원(원장 김성산),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따스한 햇볕이 요양원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날 방문했다. 입구에서 체온계, 손 세정제,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착용해서야 들어설 수 있었다.



남제주요양원은 최남단 마라도와 한라산이 보이는 조그마한 소도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병원진료, 시내 나들이 및 동네 어르신들과의 교류가 언제나 자유롭고 활발해 시설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의 가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남제주요양원은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80명이 생활하고 있다.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어르신들의 여생을 활기찬 노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는 남제주요양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작업치료.

여러 가지 곡식을 혼합해 종류별, 색깔별로 고르는 곡식을 이용한 작업치료의 경우 어르신들은 도란도란 모여 앉아 젊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곡식을 고르다보면 소근육운동, 집중력 강화, 색 변별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게꿍게임 또한 작업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게꿍게임을 하며 서로의 점수를 계산하다보면 집중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흥



시설의 가정화 시도... "케어서비스에 초점"

미를 느끼는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온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남제주요양원은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재활운동실을 개방하고, 촉탁의사와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어르신들은 안마의사 등 재활기구가 비치된 30평 규모의 재활운동실을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남제주요양원이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는 15년간 자원봉사를 해주는 모슬포이용사회(회장 김행주)와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슬

포이용사회는 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방문, 3시간동안 어르신들의 이·미용을 책임지고 있다.

고정임 사무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힘들다"며 "사회복지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하던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케어를 잘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케어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내 부모모시듯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옳은 일이다. 그래서 더욱 가슴과 온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본부 운영 준비 순풍

위원회 구성 마무리...범도민 의식개선캠페인 추진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할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의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운동본부는 11월 20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실무위원장 등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또 참여단체 중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협의 등이 이뤄졌다. 남상욱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여단체 실무위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펴나가자"고 당부했다.

실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제주시 연동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사무국' 헌관식 행사를 가졌다. 사무국은 제주운동본부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9월 15일 서귀포시운동본부, 11월 3일 제주시운동본부

를 출범시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광역 및 시·군·구 단위까지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제주운동본부는 참여단체별 중점 추진 사업을 연내에 확정하고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도민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운동본부는 7월 2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전 재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김태환 제주지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종교계(5), 경제계(4), 노동계(1), 여성계(2), 출산양육후원단체(5), 교육계(3), 학계(6), 보건의료계(5), 언론계(2), 금융계(4), 관계기관(5) 등 4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운홍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장,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남상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고신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회장, 김태환 도지사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전세주택 지원받고 훈훈한 겨울 보내세요"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등에 전세금지원

제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다.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이자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제주시가 대상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한다. 공사는 전세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해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 지역에선 10월말 현재 86가구가 25억7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문의=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아동담당(728-2681).

제주시, 저소득층장애인 135명에 휠체어 등 지원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강화와 생활편의를 돕기 위한 보장구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말까지 1억50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장애인 135명에게 휠체어 등 보장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억3000만원을 투입, 156명에게 보장구를 지원한 바 있다.

보장구 지원범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1종은 100%, 2종은 85%이다. 재질·형태·기능·종류를 불문하고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서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전동휠체어(209만원), 전동스쿠터(167만원), 수동휠체어(48만원) 등 고가의 보장구는 지체(하지)장애인 및 뇌병변 1~2급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평지에서 보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된다. 또 보청기·돋보기·안경·관절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등 총 59개 유형 78종이 지원되고 있다.

보장구 지원은 보장구 착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보장구처방전에 의해 본인이 신청하면, 제주시가 활용가능성 등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날갯짓하다

한지공예등 여성장애인 작품 전시회 '성황'

11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안미술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작은 날갯짓! 세상의 중심을 향한 큰 비상'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한지공예 및 사진 전시, 바리스타 커피 시음회로 구성된 이번 작품 전시회는 여성장애인 상담소(소장 김경미)가 2007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교육 사업을 통해 성장한 여성장애인들이 비전을 향해 달려 나가는 행복한 자리였다.

김경미 소장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이란 타이틀로 비전을 향해 3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여성장애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들의 탄방울과 동자에는 '가능'이란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 이미지의 여성장

애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 전문강사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도 가능한 힘을 키우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각오아래 비장애인과 나란히 어깨를 겨뤄 이론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당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바리스타 3명은 전시회 첫날 200여명의 시음회를 실시해 '맛이 부드럽고 좋다'는 호평을 받았다.

사범자격을 취득한 3명을 포함, 여성장애인들은 전통의 습격이 깃든 한지공예(서랍장, 화분받침대 등)를 전시했다. 또 제주의 아름다움을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모습의 여성장애인 리더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양을순(여·43·사범자격증 취득)씨는 "3년 동안 배우면서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어려움을 같이 해준 활동보조인에게 감사한다"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다.

이영애(여·43·한지공예)씨는 "이 교육을 통해 자아발전은 물론 자신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엄마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

들은 한결같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여성장애인상담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김 소장은 "2010년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먼저 배운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 주리라 믿으며 노력을 통해 성장한 여성장애인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문의=064-753-4980.

〈조순옥 명예기자〉



마음의 힘 키우기 성료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은 도내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마음의 힘 키우기'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사업은 놀이치료, 춤·동작치료, 농구, 숲생태체험, 사진기행 등을 통해 아동들의 또래관계 증진 및 사회 적응력이 향상돼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아동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에 고등어 500마리 전달

유진수산(대표 김경후)은 11월 18일 제주지원봉사센터 부설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대상자인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진공 고등어 500마리를 전달하는 등 올해 들어 3회에 걸쳐 1200마리를 전달했다.

또 김경후 대표는 지난해부터 서제주로타리클럽 회원들과 직접 담근 김장은 물론 쌀과 생선 등 생필품을 노형·이효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집안 청소와 말벗 등을 헤드리며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암교육활동센터 우리의 성견학

창암교육활동센터는 10월 23일 이용자들이 외부체험을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성견학을 견학했다. 창암교육활동센터는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외부와 접촉기회가 적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소/식/마/당

송죽원, 자립생활여행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중증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한 뒤 10월 21~22일 자립생활여행을 진행했다.

항공권 구입, 식사 및 간식메뉴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진행된 이번 여행에서 장애인들은 씨튼직업재활센터, 광주북구직업재활센터, 죽녹원, 섭진강기차마을 등을 둘러봤다.

제주정신건강센터, 전통문화체험 실시



제주정신건강센터는 11월 11일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한라생태체험학교에서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참가자 47명은 한라산 중턱의 깨물 오름을 오르고, 비석치기와 활쏘기 등 문화체험을 통해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생활의 여유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

화북초 자아탄력성증진 프로그램 운영



화북초등학교(교장 유재호)는 11월 20일부터 심리·사회극으로 진행되는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맘사랑아동가족상담센터의 협조로 총 8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아이들과 간단한 역할놀이 및 게임 등을 실시해 또래간 친밀감과 응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제주한라대학 사회서비스센터(센터장 홍연숙 교수)는 제주지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연)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7월부터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즈공예와 제주 전통요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어르신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진재활센터 초청 토피어리 만들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부지구협의회는 11월 14일 적십자회관에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 이용자들을 초청, '장애인과 함께 토피어리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적십자사봉사회는 10월 24일에도 유진재활센터를 방문, 물품을 전달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고두승)는 11월 14일 제주시 후원을 받아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및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제주산업정보대학 임원선 교수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좌재순 국장이 강의를 했고, 2부에서는 체육대회가 진행돼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속담 손끝으로 읽으세요”

제주속담사전 점자도서로 발간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제주어의 보배인 속담을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표현한 사전이 발간됐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이 시각장애인들이 제주도의 역사, 문화, 관광지 소개 등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주인들의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제주속담사전’을 점자서적으로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사전은 고재환 전 제주교대 교수가 편집하여 저술한 ‘제주속담사전’을 고 교수와 출판사 ‘민속원’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1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됐다.

제주속담사전은 610쪽 단행본이었으나 점자사전은 점자의 특성상 분량이 늘어 가·나·다·마·바·사·아·자·차~하권 9권과 부록 등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은 점자사전을 전국점자도서관과 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기관에 무상 배포했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은 “정보매체 급증에도 불구하고 점자학습 자료는 부족해 점맹인은 점차 늘고 있으며, 정보획득과 사회적응이 어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발간한 ‘제주속담사전’

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점자사전 발간이 시각장애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전국 시각장애인들이 제주어의 진수를 공유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은 제주속담으로 쓰여진 에세이 ‘식개집 아이 몸뚱이’와 ‘제주오름 100선, 오름 길라잡이’, 제주설화 창작동화 ‘검둥이를 찾아서’와 ‘누렁이를 삼켜버린 안개산으로’, 의녀 김만덕의 일대기와 18세기 제주문화사를 엿볼 수 있는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등을 점자서적으로 발간한 바 있다. 문의=723-7777.

〈현경애 명예기자〉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세상만들기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UN아동 권리주간 및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11월 19일 홈페이지 서귀포점과 함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희망나무 만들기’를 전개했다.

이날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홈페이지 서귀포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UN아동 권리 주간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여 아동의 권리의식을 일깨웠다.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리본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아동학대 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운동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요청한

다는 의미이다.

세계여성기금(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제 NGO를 통해 매년 ‘노란리본달기 캠페인(Yellow sticker campaign)’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총 155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12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유형별로는 방임 34건, 정서학대 24건, 신체학대 7건, 성학대 6건, 중복학대 51건 등이다.



가롤로의집 생활인 2명 취업

가롤로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영수씨와 김홍성씨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원고용사업을 통해 3주 동안 직무교육 등을 받고 빙스(VIPS)와 춘풍산업에 취업했다. 또 김희창씨는 한라산업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자립생활훈련 및 교육을 운영 방침으로 정한 가롤로의집은 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춰 개별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9 이웃사랑바자회’ 성황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와 MBC제주문화방송사(사장 정준)는 ‘2009 MBC 이웃사랑바자회’를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주종합경기장 야외광장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22곳의 사회복지시설·단체와 도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21일에는 인기 프로그램인 ‘열창 다 함께 차차차’ 녹화가 이뤄졌다.

알림/마당

20일 항일기념관서 아가의집 종합예술제

아가의집은 오는 20일 제주항일기념관 영상실에서 제 10회 종합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올 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했던 모습들을 확인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리다. 난타와 연극, 댄스, 판토마임, 합창, 밴드공연 등이 이어지며, 부대행사로 천연비누·손소독제 만들기과 페이스페인팅 등도 마련된다.

아가의집은 “힘들고 더디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많은 격려와 관심을 당부했다.



17일 제주보건소서 마음자리 송년행사

제주정신건강센터에서는 주민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마음자리 송년행사를 오는 17일 제주보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인들이 올 한해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해 자긍심을 높이고, 일일차집을 직접 운영한다.

행사 수익금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및 재활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문의=제주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www.jmh.org, 750-4217.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바자회 등 행사다채

“제주도민의 사랑과 희망으로 장애인복지를 디자인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인형극 동아리 깨비링은 동화책 ‘무지개 물고기’를 인형극으로 각색해 무대에 올려 개관 20주년을 빛냈다.

또 사군자(서예)동아리는 복지관 1층에서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예술적 감성을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 전시회를 가져 성황을 이뤘다.



이 외에 사랑의 바자회와 자조모임 사업발표대회 등도 열었다.

이동한 관장은 “개관 20주년을 통해 제주지역 장애인복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희망제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발치서나마 고향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강원도여행

제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면발치에서나마 북녘 땅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난 마음을 위로받는 행사가 마련됐다.

아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간 도내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젝트-고향땅을 그리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외로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제주에 살고 있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고향



을 떠난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여행 참가자들은 설악산과 화진포 김일생명장, 강릉 오죽헌, 경포대, 정동진 등 강원지역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한편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나마 고향땅을 바라보았다.

칼럼

매니페스토 운동은 복지사회로 가는 길



김범훈
제주일보논설실장

오늘(12월 1일)로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민선 5기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역은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원들을 뽑게 된다. 벌써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연말연시를 맞아 정치권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징검돌 공약막고 정책대결 유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권력의 재편에 머물지 않는다. 정국의 향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민선 지방자치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의 지평을 열어왔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치러야 했던 부정적 경험 또한 적지 않다.

재정확보 방안과 정책 타당성 등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아니면 말고'식 선심성 공약남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직사회가 선거비탈에 휘말리는 것도 문제다. 이 바람에 민생(民生)이 선거 때문에 멎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민선 5기 지방선거는 지방은 없고 정치만 존재하는 혼탁선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선거 때만의 깜짝 쇼로 끝나서는 지역발전은 부지하세월이고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 미래를 구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공약으로 경쟁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민선 5기 지방선거는 우리 선거 역사상 최초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유권자들과 선거공약을 계약하는 것이다. 선거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조달 방안과 목표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헛공약·막개발' 등 징검돌 공약을 막고 정책대결 선거로 이끌자는 취지다.

또한 선거 후에는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유권자들이 검증하게 된다. 한마디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공명

선거 시스템인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 도민 참여 기대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를 출범한 것은 기대를 한껏 높인다.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평가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선거문화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희망은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야 희망이랄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특수한 장애인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 생활의 보장, 기회균등, 깨끗한 환경 등은이의 구체적 요건들이다.

희망은 결국 복지사회로 직결된다. 내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희망을 만들 줄 아는 후보들을 만나고 싶다.

결론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은 다름 아닌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많은 도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바란다.

시론

상처받은 이에게



고보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지금 밖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다. 나는 비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흠바닥 속으로 스며드는 소리는 어머니 대지의 포근한 품안으로 빨려 들어가 새로운 임태를 알리는 생명의 소리를 예고하고, 차가운 유리창을 타고 내리며 내는 소리는 목마름 속에 해매는 이들에게 그 동안 잘 견뎠었다는 위로의 속삭임을 살며시 전하는 듯하다. 특히 새벽비가 내는 소리는 세상 속 온갖 잡음들로부터 해방되어 비와의 교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이 시간만큼은 비를 내려주는 자연의 신비에 놀랍고 감사해 하며 비가 들려주는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랑은 선순환...이기심 버려야

우리는 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기에는 사랑을 지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잊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한번쯤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랑은 서로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다. 사랑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받는 상처는 받을수록 상처가 깊은 골을 파게 되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두려워 제 마음에 감옷을 입혀 중무장을 하고서도 불안해한다. 시간이 흘러가면 상처는 흐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장행위에 불과하다. 위장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또 다른 상처가 거듭될 수 있게 만든다.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라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며 그 사람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쉽게도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신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이제 겹겹이 입은 마음의 감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사랑의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가슴을 용기 내어 들여다보자. 상처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말자. 이러한 감정들을 놓아버리자. 그러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연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런 흐름으로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흐름 속에는 모래사장을 지나는 물처럼 쉽고 빠르게 스며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고, 바위에 부딪쳐 거친 물살을 만들어내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조바심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사랑이 흐르는 방식과 속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시 사랑으로 순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배려이자 전부인 것이다.

사랑의 상처는 고통의 멍 자국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마음의 열쇠도 함께 쥐어준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일이다.

기고

푸드마켓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고성민
사랑나눔 푸드마켓점장

"푸드마켓에 다녀왔어요. 이곳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엄마!! 저금통에 저금을 많이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도울래요~"

서울의 한 푸드마켓에 다녀오면서 들었던 모녀의 대화였다. 참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도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문을 연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대한 기대감은 개점 초기 기부물품 모집의 어려움

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며 주변 이웃들에게는 커다란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제주인의 마음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수놓을 정신과 감민덕이 베풀었던 사랑 나눔의 정신은 항상 되살아났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기업체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 우리에게 암흑속에서의 등불과 같은 희망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다. 제주도민의 자력이 또 다시 발휘된 것이다.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가정의 해체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계속되어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만 가는 현실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일깨워주는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후원자들분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분들을 항상 찾아다니

는 마음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골고루 우리 사회에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해야 할 것 같다.

법정스님은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흥만 해지며, 특히 주는 쪽이 더 흥만해지는 것이 나눔의 비밀'이라는 법문을 남겼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후원자 분들이 나눔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후원의 손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나눔 푸드마켓 직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속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겠지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여러 숨은 후원자들이 있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이웃들이 '사랑나눔 푸드마켓'에서 환한 웃음을 짓게 되길 기대한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청렴성 제고방안 토론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처리 '공정'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 19일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청렴성 제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본지는 김종익 경실련협동사무총장의 주제발표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에 관한 공무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11월 19일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청렴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김종익 경실련협동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에 관한 공무원·기초생활수급자의 인식조사

공무원 89.4% "청렴하다" vs 수급자 59.2% "공무원 청렴" 차이 부정수급 있으나 효과 없고 인간적 관계 등으로 신고는 안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때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회복지 행정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익 총장은 제주경실련과 목포경실련, 거제경실련이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목포시, 거제시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217명과 제주도, 목포시, 거제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설문 결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87.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또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수급자나 시설종사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은 '그렇지 않다' (75.1%)고 답해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해 89.4%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청렴성에 대해서는

58.8%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31.9%로 다소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영역이 훨씬 더 청렴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체로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불신감이 생겼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63.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수급자들이 담당 공무원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50.6%)이 '그렇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상당수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 미뤄볼 때 조직에 대한 신뢰와 대다수의 선량한 사회복지 공무원 개인의 자존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공직부패의 원인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청렴의식 결여' (63.1%)를 첫 손에 꼽았으며, '부패행위 방지제도와 시스템 미비'와 '사회 전반의 부조리 풍토'가 각각 47.9%와 4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35.6%, '지역의 연고주의 문화'

30.9%,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28.1%, '감사기능 부실' 12.0% 등을 부패원인으로 들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설문 결과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해 응답자의 59.2%는 '청렴하다', 12.5% '청렴하지 않다', 28.3% '그저 그렇다'로 답해 공무원 응답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청렴도 비율 89.4%와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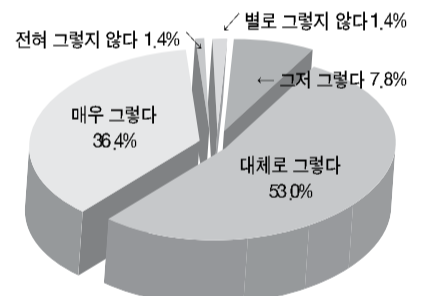
응답자의 68.2%는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53.6%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 46.7%는 '사회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 조성', 36.0%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6.2%는 '주변에서 부정행위를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부정수급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41.6%는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8.6%, '개인적인 불편' 27.5%, '신고방법을 몰라서' 20.0%, '관련자와의 인간적 관계' 19.8%, '보복이나 불이익' 3.8%의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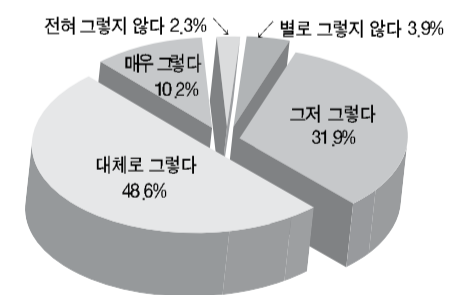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에 대해 응답자의 83.0%가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정책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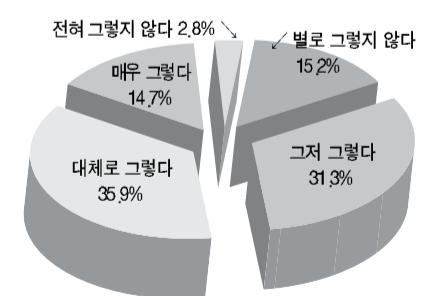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청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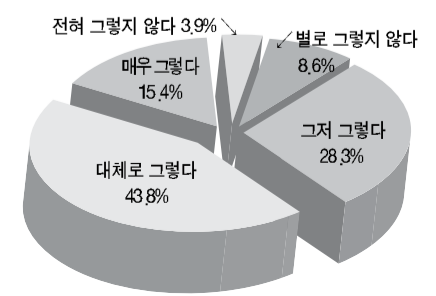
■ 민간부문 종사자 청렴하다



■ 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공무원 불신



■ 사회복지공무원 청렴도(수급자 설문)



정직한 상품
제주마쌈

It's
JEJU

It's JEJU



정직한 상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쌈' 은
제주방언으로 '제주입니다' 를 뜻합니다.

* 제주마쌈 상표이미지 소개

제주마쌈은 제주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로지원을 위한 공동상표로써 지역문화의 특성, 자연환경과 최대한 연계하면서 언어의 조화성을 고려해 '제주입니다' 의 제주방언인 '제주마쌈' 과 영문표기인 'It's JEJU' 를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의 넉넉한 미소와 함께 담아냈습니다.